



본란의 기사는 미국내 통상자문회사인 Manchester Trad社의 통상보고서 및 EC주제번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본會 國際部 (TEL : 553-0941/7) 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Audio Tape 덤핑 판정

EC 집행위는 일본산 Audio 테이프에 대해 확정 A/D 판정을 준비중에 있는데, 동 Case는 작년 11월 잠정판정이 나왔던 것으로서, 이번 결정은 조사 대상기간이 관례보다 훨씬 뒤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한국 및 홍콩으로 부터의 일본 수입품이 관련기간동안 시장을 왜곡시켰음을 들어 반증했다.

### 2. 프랑스, 부실기업 지원정책

6억 파운드 상당의 부실 컴퓨터 및 전자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결정이 정밀 조사를 받게될 것이다.

EC 법안에 따르면 일개 회원국은 정상적 시장상황에서 행위하는 주주와 똑같은 방법으로, 고군분투하는 기업에게는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나, 어려운 상황하에 있는 기업을 보조함에 의해 경쟁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프랑스 정부의 보조는 Bull社와 Thomson社를 위한 것이다.

### 3. EC/EFTA 협상 위기에 직면

유럽경제구역(EEA) 창설을 위한 EC/EFTA 협상은 여러 중요문제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여름까지 합의 도달이 어려울 전망이다. 동 협상이 실패의 조짐을 보일 경우 EFTA 국가들은 EC 회원가입을 고려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 4. EC-동구 연합 협상

EC와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옛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간의 연합을 위한 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협상은 관세장벽의 제거나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EC는 이들 국가들로 부터의 공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를 철폐할 가능성이 높다.

동 협상은 동구의 저개발국들 특히 불가리아와도 착수될 전망이다.

### 5. EC, 5대 가전업체와 회의

전자와 데이터 처리부분 협의를 위해 EC 집행위원들과 Siemens, Philips, Thomson, Bull 그리고 Olivetti의 대표들간에 회의가 개최되어 업체들은 EC 집행위가 제시한 일반적인 방안 이외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요청하였다.

EC 집행위원들은 일본으로 부터의 경쟁으로 인한 EC 업체들의 어려움에 동감을 표시하였다.

### 6. 전자산업 지원을 놓고 EC장관들 이견 보임.

EC는 내부의 의견차이와 이해의 상충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에 봉착한 전자산업을 지원키 위한 어떠한 과격한 조치도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의견의 분열은 전자분야의 산업정책을 협의키 위한 최근의 EC 통상장관 회의에서 드러났다.

EC 집행위의 광범위한 제안을 장관들이 수락했지만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의견이 있었다. 프랑스는 미국과 일본으로 부터의 격렬한 경쟁에 직면 EC 산업의 보호와 EC 정부의 개입을 지지하여 독일, 이태리 그리고 화란으로부터 동조를 받았으나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은 자유시장 입장을 취하고 Siemens, Philips, Olivetti, Bull, Thomson이 EC 조치의 주요 수혜자가 되면 이는 EC에서 활동하는 역외 업체들과 소규모업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우려했다.

통상장관들은 고율의 수입관세와 다른 통상 조치들로 EC산업을 역회경쟁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프랑스는 전자제품과 부품에 대해 현재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려는 어떠한 계획에도 반대하였고 반덤핑 조치의 강화를 요청한 반면, 국내 반도체산업이 없는 다른 국가들은 고율의 관세는 컴퓨터 제조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도체에 부과하는 14%의 관세를 인하여 줄 것을 EC에 요청하였다.

### 7. GATT, EC 통상정책 검토

4월에 발표된 EC 통상정책에 대한 GATT의 검토 결과 EC의 對내외 행태간에 모순이 들어났다. 대내적으로 EC는 차별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반면, 대외적으로 매우 차별적인 관행들을 추구하고 있다. GATT의 보고서는 통상 문제에 있어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EC 차원의 독립기구가 없는 등 EC의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개별 산업의 이익들이

일관성 없게 추구되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同보고서는 "요새 유럽"이 구축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수입에 대한 관세장벽은 완화되었다고 인정했다. 비난의 다른 대상은 다른 국가들에 대한 무역 특혜제도로 EFTA 6개국, 이스라엘과 자유무역 협정이 존재하고 있고 동구와 아랍기구 회원국들과도 유사한 협정을 협상중에 있다. EC는 역내시장의 기본적인 개방성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GATT 규정에 따른 국내산업을 위협하는 수입에 대한 규제조치(Safeguard)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쌍무적인 수출자율규제 협정을 정당화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GATT 세이프가드 규정에 대한 변경은 쌍무협정체결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8. EC 반덤핑 정책에 대한 논란

GATT의 통상정책 검토 보고서는 EC가 세계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가장 과도하게 사용하는 국가에 속하며 EC는 반덤핑법을 통상정책의 가장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980~'89년 사이에 EC는 256개의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그중 對한국 日本産 전자제품 수입에 대한 조치가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EC의 반덤핑 조치에 의 의존도가 높아 많은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對EC 수출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GATT 보고서는 EC법에 있는 공익이익(Public Interest) 조항이 반덤핑 관행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함을 주시했다.

### 9. EC, 이태리 전자부문에 대해 산업지원원조 조사

일부 이태리 업체들은 EC 내부규정에 따라 산업 구조개편을 위해서만 사용토록 제한되는 산업지원의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 이태리 당

국이 동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아 집행위는 이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C 조약은 EC 업체간의 역내 경쟁을 왜곡하는 산업지원 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 10. 유럽 반도체 업체들 제휴 협의

유럽의 3대 반도체 제조업체들인 Siemens, Philips, SGS Thomson은 연구센터의 공동 자원 조달을 포함한 긴밀한 제휴를 협의중이다. 이는 SGS Thomson 사장으로 부터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3社가 세계적인 규모의 제조업체를 최소한 하나를 만들자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3社間에 합병이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JESSI(Joing European Semiconductor Silicon Initiative) 계획으로 수행되고 있는 작업의 범위를 넘어서 공동연구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 11. 유럽 경제구역 계속 추진 움직임

유럽 경제구역(EEA)의 창설을 위한 EC/EF TA간의 협상이 최근 위기에 직면한 후 EC/EF T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궁극적인 합의가 기대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최근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EFTA 7개국은 협상을 계속할 태세인데 그중에서 아이슬랜드와 스위스가 회의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으나 협상타결의 시한인 7월까지 그 결과를 기다려 볼 것이다. 양블럭은 EC와 EFTA 국가들의 규정의 해석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을 계속하여 왔다.

### 12. EC역내 무역통계를 위한 신규 시스템

EC 집행위는 1992년 이후 EC 역내 무역통계를 입수하기 위해 Intrastat로 알려진 시스템을 제안. 이시스템은 부가가치세 시스템 운영과 연결되는데 1993. 1~1996. 12 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1992년말까지 단일시장 창설과 상품에 대한 대부분의 역내 국경통계의 철폐로 현재 사용되고는 세관서류 작성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입수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 13. EC 회원국,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기로 함

유럽 소프트웨어의 합법적인 보호 시스템을 곧 마련키로 하는 지침이 EC 12개 회원국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현재까지 오직 5개 회원국만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저작권 보호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회원국들간의 의견의 차이로 인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가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동지침의 효과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다른 문학작, 음악 혹은 예술작품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

### 14. EC, 한국·일본산 오디오 테이프에 반덤핑 확정 관세 부과

'91. 5. 14 EC 이사회는 한국과 일본산 오디오 테이프에 반덤핑 확정관세를 부과하였고 홍콩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일본 오디오 카세트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는 25.5%(잠정관세 27.4%)이며 소니, 맥스웰, 케논, 후지에게는 각각 23.4%, 21.8%, 18.7%와 15.2%가 부과되었다. 한국에 부과되는 일반 덤핑관세는 9.2%이며 SKC에 2.6%가 적용되었고 새한, 성남전자, 금산전자에는 0%의 관세가 적용되었다.

영국, 덴마크, 룩셈부르크는 반덤핑 관세부과에 반대하였는데 "피해"사정에 적용된 방법 특히 일본, 한국, 홍콩으로 부터의 수입을 누계산하는 것에 반대하였다.